

광주 서석초 “우리가 최강”

광주 서석초가 제7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지난 5일 열린 KIA 타이거즈기 초등야구대회 결승에서 장단 19안타를 터트린 막강 타선에 힘입어 군산 신풍초를 15-5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회 선발 송진우에 이어 구원 등판한 서석초 이정후(6년)는 4이닝동안 4피안타 1탈삼진 2실점(2자책)의 호투를 선보이며 대회 3승째를 챙겼다. 이정후는 타석에서도 3안타를 기록하는 등 공·수에 맹활약하며 대회 MVP를 차지했다.

MVP 이정후는 ‘야구인 2세’로 KIA 타이거즈 이종범의 아들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투수와 유격수로 활약하며 12타수 8안타 타율 0.667 7득점 4타점 3도루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대회는 호남지역 야구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5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대회 우승팀인 서석초에게는 우승기와 함께 우승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신풍초)과 3위 2개팀(광주 서립초, 군산 남초)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각각 수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초등야구대회 우승 ‘이종범 아들’ 정후군 MVP 선정돼



광주 서석초 학생들이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보양 리틀구장에서 열린 군산 신풍초와의 KIA 타이거즈기 초등 야구대회 결승에서 15-5로 승리를 거둔 뒤 양윤희 감독을 향해 치면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0 월드컵 국제배구대회 한국과 네덜란드와의 2차전에서 한국 문성민(뒤)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한국은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한국 男 배구 세계 6강 ‘암운’

세계 6강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배구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긴 팀에 승점 3점을 주고 반대로 패한 팀에는 승점을 주지 않는다. 또 3-2로 이긴 팀에는 2점, 진 팀에는 1점을 준다. 세계랭킹 16위인 대표팀은 네덜란드보다 12계단이 높았지만 주전 평균신장이 2m 3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벽을 넘기엔 실력이 부족했다. 상대전적에서도 6승2패로 밀렸다. 블로킹 득점에서 3-12로 열세였고 블로킹

점에 이어 A조 4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긴 팀에 승점 3점을 주고 반대로 패한 팀에는 승점을 주지 않는다. 또 3-2로 이긴 팀에는 2점, 진 팀에는 1점을 준다. 세계랭킹 16위인 대표팀은 네덜란드보다 12계단이 높았지만 주전 평균신장이 2m 3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벽을 넘기엔 실력이 부족했다. 상대전적에서도 6승2패로 밀렸다. 블로킹 득점에서 3-12로 열세였고 블로킹

월드리그 A조 예선 네덜란드에 1, 2차전 연속 0-3 완패 ‘승점 0’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 국제대회 일정

일자	시간	대진	장소
6.12	14:00	한국:불가리아	인천
6.13	14:00	한국:불가리아	
7.3	14:00	한국:브라질	광주
7.4	14:00	한국:브라질	

을 맞고 떨어진 공이 수비로 이어진 유효블로킹에서도 적수가 되지 못했다. 대표팀은 12~13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불가리아와 예선 3~4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KIA 이틀연속 역전패

뒷심 부족...연장 10회 넥센에 4-5 패

KIA 타이거즈가 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11차전에서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4-5로 두 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다. 초반 분위기는 KIA가 주도했다. 테이블 세터로 출격한 이용규·이종범이 연속해서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한 뒤, 1사 1·2루에서 최희섭이 좌전안타를 터트리며 선취타점을 기록했다. KIA는 차일목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3회초 선두타자 이종범이 중전안타로 출루하며 다시 한 번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안치홍의 희생번트에 이어 최희섭의 볼넷으로 1사 1·2루, 이번에는 나지완이 우중간을 가

리는 2루타로 세 번째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행운의 실책도 나왔다. 넥센의 포수 강규태가 차일목의 희생플라이때 홈에 들어오던 최희섭을 태그한 뒤 공을 빠트리며 세이프가 선언됐다. 점수는 4-0. 2승을 향한 8번째 도전에 나선 로페즈가 7회 고비를 넘지 못했다. 6회까지 사사구 없이 4개의 피안타로 넥센 타선을 막았던 로페즈가 7회말 선두타자 유한준에게 좌측담장 넘기는 솔로홈런을 허용했다. 로페즈는 클라에게도 연속해서 홈런을 맞으며 순식간에 2점을 내줬다. ‘백투백’ 홈런 이후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1·2루, 강규태의

타석에 넥센은 쓰리번트까지 감행하며 분위기가 반전돼 나섰고 로페즈가 타구를 놓치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장기영의 희생플라이로 4-3까지 추격을 당한 로페즈는 김민우에게 몸에 맞는 볼을 내준 뒤, 아쉬운 판정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면서 4-4의 동점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구원 등판한 손영민이 가까스로 볼을 끄면서 4-4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연장 10회가 마지막이었다. 9회부터 구원등판한 박정철이 선두타자 클라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뒤 이승용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의 위기에 몰렸다. 강정호를 고의사구로 걸러내면서 강규태와의 승부를 선택했지만 강규태의 타구가 최희섭의 글러브를 맞고 떨어지면서 결승타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자 알아맞추고 경품도 타고”

F1조직위 10월 10일까지 이벤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승용차와 무료 입장권 등 경품을 크게 내걸고 F1 한국 대회 홍보에 나섰다. F1 조직위원회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9개 대회의 우승자를 맞추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라운드별 우승자 맞추기’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의 개최 열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9개 라운드를 종합해 최종 우승자를 맞춘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기아 포르테를 승용차를 경품으로 준다. 또 2명에게는 F1 공식 타이어 공급업체인 브리지스톤의 승용차용 타이

어를 제공한다. 이의 1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10일 사이에 열리는 9개 대회별 우승 선수를 알아 맞추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한국대회 그랜드 스탠드 E석 입장권 1매(1명), 그랜드 스탠드 I석 입장권 각 1매(2명)를 준다. F1대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f1.com)에 접속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영국·독일·헝가리·벨기에·이탈리아·싱가포르·일본 등 총 9개 대회마다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드라이버를 선정하면 된다. 매 대회 결승 전날 24시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추첨을 거쳐 대회가 끝나는 수요일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김지우기자 dok2000@

이현주 짜릿한 역전 우승 KLPGA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현주(22·동아회원)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이현주는 6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골프장(파72·642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이븐과 72타를 쳐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홍진주(27·비씨카드)에 1타 앞선 이현주는 우승 상금 8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5월 서울경제 힐스테이트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던 이현주는 개인 통산 2승, 시즌 첫 우승은 극적인 막판 역전 6으로 장식했다. 6번 홀(파4)까지 이현주·홍진주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던 김보배(23·현대스위스저축은행)는 17번 홀(파4)에서 2타를 잃는 바람에 시즌 첫 2승 고지 등정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MEGABOX

1관	방자전 (18세)	최고급권
2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히녀(18세)/방자전(18세)	
4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전세)	
6관	로빈 후드(15세)/페르시아의 왕자(12세)	
7관	내 캠페일은 에인(15세)	
8관	유령작가 (15세)	
9관	방자전 (18세)	

• 호남주치단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상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림원역국사거리 ☎ 1544-0600

컬롬버스시네마

1관	하녀 (18세)
2관	내 캠페일은 에인(15세)/내 남자의 순이(15세)
3관	방자전 (18세)
4관	방자전 (18세)
5관	로빈 후드 (15세)
6관	꿈은 이루어진다(15세)
7관	드래곤길들이기3D(전세)
8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9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10관	유령작가 (15세)
1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권, 하남점 동시개봉!!

전설의 대제국! 선택받은 아들의 영혼

1588-7941 상담연결 방방-(1번 or 2번)→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세)
2관	유령작가 (15세)
3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4관	내 캠페일은 에인(15세)
5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6관	하녀 (18세) / 방자전 (18세)
7관	방자전 (18세)
8관	드래곤길들이기3D(자막)더빙(전세)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방자전 (18세)
2관	나이팅에어 (18세)
3관	내 캠페일은 에인(15세)
4관	하녀 (18세)
5관	유령작가(15세)
6관	아이언맨2 (12세)
7관	로빈 후드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무소 일호타워유치점 -다. 입장권 구매 교외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종로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